

新HSK 高級 口述評價 教授 方法 研究

- 文法的, 話用論的 適合性 중심으로 -

文 貞 惠*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향후 중국어 말하기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 II. 新HSK 고급 구술평가에서의 문법과 화용론적 교육 | V. 나가는 말 |
| III. 新HSK 고급 구술평가와 말하기 교육의 외연(外延) 확장 | |

I. 들어가는 말

언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이자 수단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소통한다. 작금의 세계는 지구화와 지역 블록화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고 그와 함께 더욱 많은 지구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듯 다변화되어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국어 의사소통 수행 능력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기구인 ‘中國國家漢辦’은 중국어 학습자들의 생활 및 학습 환경에서의 실제 언어 활용 능력에 평가의 중점을 둔 ‘新HSK’를 연구·개발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新HSK’는 ‘中國國家漢辦’이 ‘新漢語水平考試(大綱)’¹⁾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國家漢語能力標準》²⁾과

* 大邱Catholic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CEF》³⁾의 언어교육지침 이념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연구·개발된 실용성을 강화한 평가방식으로서, ‘평가와 교육과정 결합(考教結合)’, ‘평가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촉진’, 중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추구’를 통하여 그 실용성을 실천하고자 하였다.⁴⁾ ‘舊HSK’의 교육과정과 다소 유리된 시험 지향의 단편적이고 진부한 평가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평가방식으로써 ‘新HSK’는 듣기, 말하기, 쓰기의 출력(out-put)평가의 비중을 확대·강화하였으며, 동시에 중국어 학습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의사소통적 언어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 측정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개발된 ‘新HSK’는 ‘필기평가’⁵⁾ 뿐만 아니라 특히 ‘구술평가’⁶⁾를 초급, 중급⁷⁾, 고급 세 등급으로 구

- 1) 《新漢語水平考試大綱》前言：‘新HSK’是國家漢辦組織中外漢語教學、語言學、心裏學、和教育測量學等領域的專家，充分調查、了解海外實際漢語教學情況，考慮了普通漢語學習者和專業漢語學習者、來華漢語學習者和非來華漢語學習者的差異，在吸收原有‘HSK’的優點，借鑒近年來國際語言測試研究最新成果的基礎上，推出的一項國際漢語能力標準化考試。즉 다시 말하면, ‘新HSK’ 중국과 외국의 중국어 교육, 언어학, 심리학과 교육측정학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 언어측정 이론의 여러 최신의 연구 성과와 ‘國家漢語能力標準’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되었다. 여기서 국외의 연구 성과는 바로 《CEF》를 말함.
- 2) 중국어 교육의 국제적 표준 마련이라는 취지하에 2007년 ‘國家漢辦’이 제정한 중국어 교육의 지침이 되는 강령성 문건임.
- 3) 2001년 유럽의회가 유럽 연합국의 공통적인 언어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한 학습과 교수, 평가를 아우르는 통일된 언어정책과 포괄적 언어지침으로, 영어 약어로는 《CEFR》혹은 《CEF》, 《CEFRL》등으로 쓰인다(《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ment》). 본고에서는 《CEF》을 일괄적으로 사용함.
- 4)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2009) 《新漢語水平考試大綱 1級》서문: “新HSK遵循‘考教結合’的原則,目的是‘以考促學’,它不僅關注評價的可能性、準確性,關注考生的現有水平,而且重視鼓勵考生的策略,重視怎樣進一步提高、發展考生的漢語能力。……”
- 5) ‘新HSK’ 필기평가는 전체를 6등급(초급 1-고급 6) 체제로 구성되었음.
- 6) 구술평가는 선택사항으로 녹음형식(녹음기 휴대)이며, 필기평가 급수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7) 초급 구술평가는 약 200개의 상용 어휘를 알고 있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하며,

분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술평가’의 독립 구성은 특히 ‘舊HSK’와 차별되는 것으로, ‘舊HSK’의 초, 중등 시험에서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대한 평가 부분이 부족한 점을 개선·보안하고, 동시에 고등에만 있던 구술시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제로 ‘필기평가’만으로 학습자의 중국어 교제 능력과 운용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교육에서 가장 직접적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하기’교육이다. 읽기, 듣기 및 기타 언어강좌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input)위주인 반면, 말하기는 이미 배운 언어, 배운 정보를 표현해내고 특히 학습자들의 언어 운용·활용 능력과 수행 능력의 배양이 주된 목적인 출력위주의 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배양에서 입력의 이해능력보다 출력의 활용능력이 더 어려운 과정이다. 의사소통 수행능력에 있어서도 실제 사용에 있어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가라는 지식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는 질적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어쨌든 출력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구두(口頭)작문’으로서 ‘말하기’는 ‘서면(書面)작문’으로서 ‘글쓰기’ 활동과 매우 유사한데, 글쓰기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연필과 종이, 컴퓨터 등이라면, 말하기는 주로 ‘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출력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요구는 글쓰기에 비해 말하기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정확하고 엄격하다.

최근 ‘新HSK’에 구술평가가 도입되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

총 3부분 전체 27문항으로 ‘듣고 반복하기(聽後重複) 15문항’, ‘듣고 답하기(聽後回答) 10문항’, ‘문제에 답하기(回答問題) 2문항’으로 구성됨. 중급 구술평가는 약 900개의 상용 어휘를 알고 있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3부분 전체 14문항으로 ‘듣고 반복하기(聽後重複) 10문항’, ‘그림을 보고 말하기(看圖說話) 2문항’, ‘문제에 답하기(回答問題) 2문항’으로 구성됨.

국어 학습 중에서 중국어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질적인 중국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중국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는 영어 등의 다른 외국어와 비하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조언어로서의 중국어는 특히 언어학습에서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기존의 문법, 독해 위주의 외국어 학습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문법적, 화용론적 측면에서 ‘新HSK’ 고급 구술평가에서의 교수 방식을 살펴보고,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의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에서 고급수준의 말하기에 대한 교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의 중국어 말하기 교육에 필요한 몇 가지 현실적인 제언을 통하여, 기존의 어법과 독해 등이 강조된 말하기 교육이 아닌 수행이 강조되는 말하기 교육으로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I. 新HSK 고급 구술평가에서의 문법과 화용론적 교육

1. ‘新HSK’ 고급 구술평가의 구성

‘新HSK’ 고급 구술평가는 녹음형식으로 ‘듣고 말하기 결합’, ‘읽고 말하기 결합’으로 응시생들의 중국어 구어표현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유형이다. 주로 매주 2~3시간씩 4학기 이상 중국어를 공부하고 약 3,000개의 상용 어휘를 알고 있는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 구술평가는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으로, 고급에 합격한 응시자는 중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어로 유창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전체가 3부분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시험시간은 약 24분(준비시간 10분 포함)이 소요된다.

제 1부분은 ‘듣고 다시 말하기(聽後複述)’ 유형으로 모두 3문항으로서 매 한 문제당 2분으로 총 7분의 시험시간이 소요된다. 대략 120자에서 140자 사이의 단문(短文)을 약 40초간 들려주며, 응시생은 녹음을 듣고 다시 한 번 말하면 된다. 이러한 평가유형은 듣고 이해한 정보를 내화한 지식의 산출과정을 측정하는 것인데, 응시생의 원문에 대한 정확한 듣기 이해 능력과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특히 원문을 배경으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진술하는 구어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제 2부분은 ‘낭독하기(朗讀)’ 1문항으로, 응시생은 제시된 300자 정도의 단문(短文)을 2분 안에 낭독하면 된다. 낭독평가는 먼저 응시생의 중국어 어휘 습득량을 파악하고 또한 표의문자(表意文字)인 중국어의 발음 숙달 여부, 성조, 어조(語調), 강세, 경성, 리듬단위(節奏單位)와 끊어 읽기 등 중국어 운율(prosody)에 대한 평가를 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응시생의 전반적인 구술 능력을 짐작하는 평가유형이다.

제 3부분은 ‘문제에 답하기(回答問題)’로 모두 2문항인데, 응시생은 시험지에 제시된 질문을 읽고 매 한 문제당 2분 50초 정도의 시간 안에 대답하면 된다. 이는 응시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평가유형으로 주로 중국어의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을 측정한다.

2. ‘新HSK’ 고급 구술평가와 문법영역의 연계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문법 교육의 목적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궁극적으로는 중국인과의 실제 교제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과 학습은 중국어 문법체계와 문법이론 등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큰 틀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록 체계 없이 다소 산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단어 한 개, 문법항목 한 개, 문장 한 개라도 어떻게 사용해야 중국어 문법에 부합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중국어 문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정 상황에 적합한 문법적인 문장표현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등 그 ‘용법’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학습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중국어 수행 능력배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新HSK’ 구술평가에서의 문법교육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新HSK’ 구술평가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전제되는 출력위주의 문법 교육 방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중국어의 문법특징, 문법규칙의 내재화를 기본으로, 텍스트(篇章)와 같은 확대된 언어 환경에서 각각의 문법항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기능과 화용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특히 이것을 구체적인 말하기 표현활동과 연계하여 문법적인 문장표현을 생성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중국어 운용능력과 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형의 그러한 문법 교육 방식인 것이다. 이는 ‘新HSK’의 이념과 목적에도 부합되고 또한 동시에 ‘新HSK’ 구술평가에 대한 적응력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新HSK’ 고급 구술측정의 3개 평가유형과 연계하여 출력이 중시되는 교육에서 문법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듣고 다시 말하기(聽後複述)’에서의 문법 교육

‘복술’은 기존의 자료를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그대로 따라하는 중복이 아니라 이해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정확한 원문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그것을 다시 취사선택의 가공과정을 거쳐 자신의 언어와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듣고 다시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딕토글로스(dictogloss)’⁸⁾와 같은

8) 딕토글로스(dictogloss)는 ‘Grammar Dictation’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문법작문’, ‘듣고 받아 적어 재구성하기’, ‘듣고 말하기’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語法聽寫’, ‘整體聽寫’, ‘合作聽寫活動’, ‘聽記法’, ‘複述’ 등의 표현법이 있음. 본고에서는 ‘딕토글로스(dictoglos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딕토글로스’는 전통적인 ‘받아쓰기’와는 다른 전체 단문의 내용을 듣고 파악하여 최대한 원문의 내용과 같게 문장을 다시 재구성하는 듣기를 기반으로 읽기, 말하기, 쓰기의 언어영역과 문법영역까지도 함께 연습할 수 있음.

복술 훈련 방식을 활용한다면 듣기와 말하기, 쓰기 및 문법 교육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언어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듣고 메모한 단문(短文)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다시 ‘자기의 표현’을 사용하여 스토리를 재구성하게 하는데, 이러한 문장 재구성과정에서 중국어 문장표현과 문법내용을 끌어내고 정확도를 검증하고 상응하는 피드백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학습자들에게 먼저 단락마다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중심 어휘 혹은 문장을 선택하여 한 두 개의 문장(單句)을 만들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문들을 서로간의 의미적, 논리적인 문맥관계에 따라 적절한 접속사 혹은 문형을 사용하여 연결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이때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법 오류 현상에 대한 수정, 표현방식의 정확성, 적절성 및 다양성 여부에 대한 분석, 전체 문장의 논리전개관계에 대한 적절한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학습활동과 연계한 문법학습은 단순한 입력위주의 문법 교수·학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유용하고 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2) ‘낭독하기’에서의 문법 교육

‘낭독’은 실제로 학습자의 전반적인 구술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중국어의 문법 지식의 정확한 장악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평가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운율과 문법구조와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어의 리듬단위⁹⁾와 강세의 형성은 중국어의 문법특징과 문법구조의

9) 심소희, <中國語의 리듬(Rhythm)단위와 語法構造>, 《중국어문학지》 5, 1998, 12: “하나의 긴 발화는 끊임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음절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 어떤 음절은 조금 소원하여,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말토크로 나뉘며, 또한 말토크 안에서도 음절이 많으면 조금 빠르게 읽히고 음절이 적으면 조금 느리게 읽혀서 이를 들어보면 단조롭지 않은 가락으로 사람들에게 리듬감을 준다. 이러한 음절덩어리를 ‘리듬단위’라고 명명한다.”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단문의 경우 문장 안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두 개 이상의 단문으로 이루어진 복문의 경우도 하나의 절로 기능하는 단문과 단문 사이에 쉼표가 표기될 뿐, 역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어 문장의 구성 방식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어의 문장 구성방식에 익숙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물론 한국어 문장이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실제 발화에서 생기는 ‘끊어 읽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어 문장에서 띄어 쓴 위치마다 반드시 끊어 읽기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은 중국어 문장을 끊임이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읽어 낼 수도 없다. 즉 한국어 문장이냐 중국어 문장이냐 모두 실제 발화 시에는, 어떤 단어들은 긴밀하게 결합되고 또 어떤 단어들은 조금 소원하여, 길이가 각각 다른 말토막으로 나뉘는 등의 원인으로 일정한 리듬단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리듬단위의 형성은 바로 중국어의 문법특징과 문법구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리듬단위의 차이는 중국어를 중국어답게 구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문장을 낭독할 때 형성되는 리듬단위는 중국인의 그것과 대비하여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즉 중국인은 ‘介賓結構’, ‘虛詞結構’, ‘數量結構’를 모두 리듬융합으로 읽는 반면, 한국인은 ‘數量結構’만 리듬융합으로 읽고 ‘介賓結構’, ‘主謂結構’, ‘聯合結構’는 오히려 리듬경계로 읽는 경향이 높다는 것¹⁰⁾이다. 중음현상 역시 구어표현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 문장의 뜻을 변별하고 또한 끊어 읽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는 특히 중국어의 문법특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¹¹⁾

우리는 또한 낭독 텍스트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문장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구, 절,

1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심소희 <한국인의 중국어 문장 끊어읽기에 대한 고찰>, 《中國言語研究》 8, 1999 참조.

11)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樸敬瑞, <漢語語義表達與重音>, 《中國語文學論集》 18, 2005 참조.

문장으로 이어지는 층차적 분석과 의미 결합관계 등의 문법단위와 문장의 배치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진술한다. 이때 상응하는 문법상의 오류와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 지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제에 답하기’에서의 문법 교육

‘문제에 답하기’와 같은 평가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언어운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목표언어인 중국어에 대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중국어 학습자가 읽기 등의 이해영역에서는 중·고급수준이라 하더라도 표현영역, 특히 말하기 능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평소 목표언어를 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서술형의 말하기 연습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주제에 따른 서술형의 구두작문방식 등 학습자의 사고력과 논리력 및 언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도 깊은 능동적인 출력위주의 학습활동을 전개하여, 학습자의 총체적인 언어능력이 배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유형에서 우리는 ‘생각 말하기 포로토콜(Think-aloud protocol)’¹²⁾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말하기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주제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한국어를 메타언어(meta-language)로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면서 중국어와 한국어 간의 언어전환방식을 취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학습자들은 주제에 대하여 본인의 견해를 하나씩 일관성 있게, 응집성 있게 생성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한 문장씩 중국어로 표현하고 또한 이들 개개의 문장을 엮어서 전체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명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단문으로 엮어낸다. 이때 우리는 개개의 문장에서 사용한 어휘가 정확한지, 사용한 문법항목이 중국어 문장규칙

12) ‘생각 말하기 포로토콜(Think-aloud protocol)’ 혹은 ‘사고기술’이라고도 함.

에 부합하는지, 또는 각 문장을 엮어 내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문맥관계, 논리관계가 정확한지도 그것을 표현하는 문법항목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오류수정과 적절한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언어 수행의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新HSK' 고급 구술평가 교육

언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습자들이 원어민과 상호 소통하는데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인간 활동 및 생활양식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언어 자체 또는 언어 능력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다. 언어 체계는 발화의 산물이며 발화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양식이라고 보면서 언어의 수행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지?'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어 교육에서 실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로 인해 대화자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내가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말도 '하는' 것이고 외국어 교육의 목적도 원어민과 소통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언어의 수행성에 기초한 화용기반의 새로운 언어교육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각각의 언어는 그 사회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사유형태를 배경으로 하므로 언어 간에는 늘 적지 않은 소통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배양은 단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표현 지식만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발화행위와 그것의 운용습관을 익히고 실천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훈련 과정에서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관습을 익히는 과정은 또한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나라에 대한 문화적 통찰력도 길러주어 문화적 소통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계통적으로나 유형적으로나 전혀 다른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쓰인 문장의 형태 및 구성방식에서 이러한 차이점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자의 표의성과 그림문자의 특징이 상이한 언어체계를 가진 우리와 지금까지 문화적 교류를 이어 오게는 하였지만, 한자의 불완전한 문자기능, 표음기능이 불완전한 한자, 나아가 성조언어(tonal language)라는 특징은 비(非)성조언어체계를 가진 우리 한국인에게 특히 중국어만의 고유한 리듬(Rhythm) 습득에 골치를 앓게 하였고 중국어 듣기와 말하기에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는 중국어의 이러한 구체적 특성을 감지하여 언어의 수행성에 기초한 중국어 말하기 교육을 ‘新HSK’ 고급 구술평가를 통하여 실천해보고자 한다.

(1) 창조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서의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는 외국어를 이용한 사고, 입력과 출력을 통한 언어지식 활용과 운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구사 및 전달 등과 같이 능동적인 언어학습과 수행이 가능한 총체적인 언어 훈련의 유용한 방법이다. 이는 암기하여 말할 때의 기계적인 반복, 중복이나 혹은 그대로 따라 하기(shadowing)와 같은 단순한 반응이 아닌, 듣고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말하기 학습 활동인데, 듣고 이해한 정보를 요약하거나 종합하여 스토리텔링하는 과정에서 특히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반면 의사소통의 효과는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新HSK’의 ‘듣고 다시 말하기’와 ‘낭독하기(朗讀)’는 바로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듣고 말하기’시스템을 적용하기 제일 적합한 평가유형이며, 사용하는 語料庫(Corpus) 역시 현대의 실제생활과 관계있는 스토리 구성이 용이한 텍스트이다. 수업현장에서 학습자들은 처음 적응시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듣고 말하기’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면서 지금까지의 습관처럼 결코 문장이해에만 몰두하거나 문장만을 먼저 암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후화행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중요정보를 뽑아내고 또 그것을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

야기로 엮어 나가는 언어수행의 의지를 보여 준다. 언어학습이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교과서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의 생성, 확장 및 수정을 통하여 다양한 입력과 말하기 감각을 체득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전달성과 정확성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2) ‘경제원칙(經濟原則)’, ‘예절성 원칙(禮貌原則)’과 효과적인 언어 수행 모든 언어는 그 사회의 구체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유형태, 언어배경, 언어체계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 적절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어는 상형성을 기본으로 한 한자라는 독특한 그림문자와 함께 한자문화권 속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어만의 글쓰기, 말하기 등과 같은 언어 표현 패러다임을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어 표현형식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리듬감’, 절제된 ‘간결미’, 교류목적에 맞는 ‘적절성’ 등과 같은 언어 표현 관습을 체득하여 그에 부합되는 중국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역으로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언어습관으로 인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보다 정확히 인지하게 됨으로써 모국어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어운용의 ‘경제원칙’, ‘예절성 원칙’ 개념을 ‘新HSK’의 ‘듣고 다시 말하기’와 ‘문제에 답하기’ 두 평가유형에 적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동시대의 중국인의 언어관습에 부합하는 중국어 표현형식을 인식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상응하는 사회적 교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新HSK’의 ‘듣고 다시 말하기’ 평가에서 제시된 단문(短文) 지문 내용 중 주요하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중심으로 몇 개의 ‘단문(單句)문장으로 만들고 또 연결’하게 하여 마지막으로 완전한 의미의 최대한 간결하고 스마트한 형식으로 서술하게 한다. 이때 문장 연결과정에서 ① 불필요한 관련사의 사용을 자

제하여 최대한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한다. 관련사의 생략은 중국어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특징은 상당히 집약적인 중국어 표현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중국어의 이러한 언어적 특징을 감지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으므로 접속사의 남용 현상 또한 매우 두드러진다. 또한 ② 중복되는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어휘 혹은 어구를 생략하여 문장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③ 한 개의 문장에 몇 개의 수식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정보전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조심하고, ④ 정보밀도를 너무 높게 하여 어색하고 쓸데없이 긴 비경제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을 지양하며, ⑤ 문체를 고려하고 동시에 ⑥ 서면어와 구어(口語)적인 표현의 구분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중국어다운 말하기가 되도록 한다.

‘문제에 답하기’와 같은 평가유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서술한 언어 운용의 경제원칙을 충실히 견지하면서, 동시에 ①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② 명확한 정보전달에 필요한 어휘 및 표현형식을 선택하여 본인의 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절성 원칙을 의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더욱 용이하게 교류목적을 달성하게 하며, 또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언어수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실제 과제 해결 중심의 ‘Speech act’와 합작원칙(合作原則)

‘말’은 ‘입’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액션러닝(action learning) 교수, 현장 수업에서 실제 과제 수행 중심의 ‘Speech act’인식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 표현능력을 이끌어 내어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서술능력, 묘사능력, 논증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또한 ‘新HSK’의 ‘문제에 답하기’와 같은 평가유형에 대한 적응력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① 인터뷰(interview) 형식 혹은 토론과 참여 소통을 통하여 주제에 대한 의견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면서 적당하게 암기하도록 유도하거나 ②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형

식을 취하여 비언어적인 공간적 여유를 통하여 주제에 대한 사색을 하게 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이때 중국인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我想, 我看, 我覺得, 我認爲, 我希望, 以我看, 據說’ 등과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주관적인 진술 태도를 배양하게 하는데, 이러한 원어민들의 습관적인 말버릇의 적절한 활용은 또 한편으로는 학습자의 중국어 표현의 유창성과 능숙도를 보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학습자의 지식수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및 기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서술형담화 형태의 체득과 중국어 문장의 ‘언외지의(言外之意)’를 전달해 낼 수 있는 언어표현의 책략적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4) 드라마(drama)를 통한 반응적 중국어 말하기 학습

중국어는 성조를 갖는 언어이므로 듣기와 말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직접 마주보고 하는 대화 혹은 진술이 아닐 경우 더욱 그러하므로,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의 터득을 통하여 표현과 소통을 동시에 재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를 통한 중국어 학습 방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접근법이고 매우 구체적인 실천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新HSK’ 고급 구술평가 중 특히 ‘낭독하기(’의 측정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① 스토리 나레이션(story narration) 연기 방식을 통하여 강세와 억양 등 언어의 다양한 нюан스를 통하여 의미표현과 내용전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② 현대 중국인의 실제 생활을 담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 특히 그들의 현재를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낭독 훈련은 그들의 몸짓, 표정 언어에 서부터 나아가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학습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소통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가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를 통한 입체적 중국어 학습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연상하여 문장도 짓고 말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新HSK 고급 구술평가와 말하기 교육의 외연(外延) 확장

말하기는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수행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언어소통과 언어수행의 개념은 언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언어 수행과 구체적 수행을 통하여 성취한 바가 무엇인지는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 활동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적으로 재현해내려는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표방한 ‘新HSK’에서의 본격적인 구술평가의 도입은 중국어 말하기 교육의 방향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식의 변화를 재촉하고, 나아가 중국어 말하기 교육의 질 제고와 함께 학습자의 ‘총체적인 중국어 출력능력의 배양’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겨 주었다. 이에 우리는 먼저 문법적 화용적 측면에서 고급 구술평가 교수에서의 당위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을 시도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실천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고급 중국어 말하기 교수 현장에서 나타날 교수 방식과 내용의 변화를 짐작하고 예측해보고자 한다.

첫째, 철저한 학습자 중심으로 디자인된 말하기 교수·학습 진행

일반적인 중국어 관련 수업에서는 대체로 교수자 혹은 수업에 필요한 특정 매체가 수업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국어 이론 수업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말하기 수업은 철저하게 학습자가 교실의 중심이 되고 교수자는 주로 방향제시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디자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많은 말을 하게 할까’에 교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상세한 설명과 간섭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간혹 특히 중국인 원어민 교수의 경우 말하기 수업이 듣기 수업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말하기 수업의 이러한 내재된 특징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학습자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新HSK’의 ‘문제에 답하기’의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말하기 전 활동’을 좀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주제에 대하여 사고하게 하고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주제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듣고 다시 말하기’ 평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자는 중요정보를 뽑아 낼 수 있는 질문 혹은 주제어 제시를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제시된 단문에서 핵심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후 학습자가 그것을 스스로 엮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여기서도 철저히 학습자가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용적 기반의 언어 수행성에 기초한 교수·학습 진행

중국어 언어지식 습득이나 문법적 능력 배양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습자들의 언어기능 수행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문법규칙과 같은 언어지식이 화용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질적인 언어수행과 어떤 구체적인 연계가 있으며,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는 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新HSK’의 ‘문제에 답하기’의 경우 단순한 어휘, 문장 규칙, 각종 중국어 표현형식의 습득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개의 표현에 필요한 도구들이 구체적인 주제토론과 연계했을 때 어떻게 서로 간에 섞이고 융합되어 창조적인 통섭의 언어표현효과를 만들어 내고 하나의 완정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느냐 인 것이다.

셋째, 원어민의 언어운용관습 체득이 더 중요한 말하기 교수·학습 진행

의사소통능력과 실질적인 언어수행 능력은 원어민이 사용하는 언어표현 형식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실제 교류에서 원어민의 발화행위와 언어운용관습을 체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운용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어 언어운용관습에는 바로 중국인의 사유형태가 고스란히 녹아있으며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경우 ‘新HSK’의 ‘듣고 다시 말하기’측정에서 주어 특히 목적어의 중복사용현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이는 아마도 한국어의 간접으로 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서술어 성분 앞에 필요이상 많은 수식어를 나열함으로써 ‘동사중심-실사의 측면’과 같은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국어 표현의 본질을 살려내지 못하고 주요정보를 희석시키는 경우, 위의 문장 내용을 이어 받아 연결할 때 접속사, 주어 혹은 주어에 상응하는 표현성분을 중복 사용하는 경우 등 이 모든 것이 원어민의 발화행위와 언어운용습관에 익숙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제 토론 시 어떤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할 때 ‘是這樣, 就是說, 話說回來, 反過來講, 再說’ 등과 같은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발화표현 역시 익숙하지 않은데, 만약 이러한 표현들을 매우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의 중국어 표현에 유창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과제해결 중심, 서술형담화 중심의 교수·학습 진행

주제 토론 혹은 구체적 과제 수행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언어구사행위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이끌어 내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서술형의 말하기 훈련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언어사용능력과 문화적 지식 사용능력을 함께 배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문장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구두 진술·묘사 능력 및 논증 능력의 총체적인 언어구사능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제해결중심의 교수가 가장 필요한 것이 특히 ‘新HSK’구술평가의 ‘듣고 다시 말하기’와 ‘문제에 답하기’와 같은 구술평가유형이다. 대화형의 말하기 훈련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용이하다. 그러나 총체적인 사고 훈련이 될 수 있는 서술형의 말하기 훈련방식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종합적이고 언어표현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까지도 파악해 낼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다섯째, 전문적인 중국어 운율에 대한 교수·학습 진행

중국어 학습자들, 특히 고급수준의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 중 중국어 표현 형식과 의미 형식면에서는 매우 유창한데, 운율 면에서 어딘가 모르게 ‘약간 모자라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이 중국어다운 중국어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음과 성조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확대하여 전문적인 중국어 운율교육을 실시하여 중국어 교유의 리듬을 감지하게 해야 한다. 이는 ‘보고 쓰는’ 중국어 교육에서 ‘듣고 말하는’ 중국어 교수 및 학습으로 더욱 근접하게 할 것이다. 흔히들 ‘新HSK’의 ‘낭독’평가는 학습자의 중국어 능력 평가에는 부적합하며 심지어는 구술평가로서의 어떤 효용가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실은 ‘낭독’ 평가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중국어 구술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는 없다. 즉 발음, 성조, 경성, 강세 등은 어휘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끊어 읽기, 휴지, 어조(억양 및 뉘앙스 포함) 등은 중국어 문법 지식 측정을 포함하여 원어민과 같은 정보 전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낭독 평가 역시 비록 다른 두 개의 구술평가유형처럼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중국어 구사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종합적인 구술능력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유의미한 평가항목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V. 향후 중국어 말하기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언어 교육의 이론적 이념과 이상을 실제 언어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新HSK’ 구술평가가 ‘평가와 교육과정 결합’의 원칙과 학습자의 ‘중국어 활용능력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직은 ‘新HSK’가 실제 중국어 교수·학습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줄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

자의 중국어 활용능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최근 이를 겨냥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식으로의 전환과 현실화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련 서적 출판, 교수·학습 방법 개발 등의 구체적인 실천의 제스추어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단한 현실의 벽을 짧은 시간에 뛰어 넘어 더욱 많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낸다는 것이 웬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에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현실에 기초한 효율적인 중국어 말하기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행적 기반의 말하기 교육으로 패러다임(paradigm) 전환, 상응하는 발전된 의사소통 교수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필요

언어는 정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그 자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대체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작용한다. 그러므로 의사 전달 수단을 위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 수행이 배제된 언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불가하다. 이에 언어교육에서도 단순한 지식습득, 단순한 정보전달만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또 그것과 소통하려는 행위가 강조되는 언어의 수행성 특징에 대해 재인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언어행위가 바탕이 되는 말하기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아울러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좀 더 발전된 의사소통 교수법의 연구·개발 역시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둘째, 말하기 교육을 위한 ‘중국어 자연 담화 語料庫제작 및 활용 필요

말하기 교재뿐만 아니라 수업현장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언어는 동시대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담화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이 ‘구어회화교재’라고 명명하기는 하지만 대화 내용이 원어민들의 담화와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중국어 능력평가인 ‘新HSK’에서 사용하는 ‘語料庫’가 ‘현대의 중국인의 실제생활과 관계있는 흥미로운 내용’의 사용을 기본으로 한

다는 점 역시 우리로 하여금 ‘중국어 자연 담화 語料庫’를 제작하고 또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언어의 수행성 특징이 관철된 중국어 말하기 교재 연구·개발

교재는 교수자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업에 적합한 교재의 선택이 교육의 효과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행적 기반의 언어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또한 동시대 원어민들의 자연담화 연구결과가 반영된 그러한 교재가 나와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이 고려된 한국인 학습자가 배우기 적합한 교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고급 수준에 적합한 중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은 초·중급에 비해서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중국어 말하기 교육의 전문성 확보

① 동시대 원어민의 자연담화에 근거한 그들의 언어운용관습 체득과 활용이 중요한 교수와 학습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리라 짐작한다. 의미는 비슷한데 ‘왜 우리의 중국어 표현은 이렇게 교과서적이고 딱딱한데 중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중국어는 왜 그렇게 생동감 있게 들리는지?’ 앞으로의 중국어 말하기, 특히 고급수준의 말하기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중국인의 발화행위, 언어운용관습을 체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생한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② 원어민의 언어운용관습 학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어 운율교육’이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중국어를 중국어답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언어교육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말하기 교육에서는 성모(聲母)와 운모(韻母) 및 성조를 포함하여 강세, 경성, 어기, 어조, 휴지(停頓), 어류흐름변화(語流音變) 등이 좀 어색하거나 혹은 틀려도 기본적으로 의사소통만 된다면 대체로 그것을 허용 하였다. 게다가 말하기 수업의 일부분으로 중국어 발음과 성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만 이루어졌을 뿐, 기타 중국어 운율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지도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실령 고급수준의 구어 구사 능력을 갖춘 학습자일지라도, 중국어의 리듬 표현은 그의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는 바로 중국어 발음학(語音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③ 입체적인 언어 교육과 활동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자료, 매체 교구의 활용, 연극 활동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언어교육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의 교육환경 필요.

다섯째,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사 교육과정, 국제 중국어 교사 교육과정의 설치를 통하여 자질과 전문성을 겸비한 중국어 교사 양성

‘교사가 교육의 전부’라는 말도 있듯이 수준 있고 전문적인 교육에는 그에 상응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실무 영어교육,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하고, 아울러 특히 ‘TESOL (Teaching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혹은 ‘TESL(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통한 영어 교사양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어 교육의 방향도 실용적인 추세로 흐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어중문학’ 전공자들이 ‘어학’ 혹은 ‘문학’ 등 전공에 상관없이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중문학 전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지식구조, 언어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 부재, 언어 교수법의 몰이해, 심지어는 중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의 문제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들이 중국어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 이들도 언어교육에 필요한 지식구조와 능력구조를 갖춘다면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훨씬 더 큰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새로운 중국어 능력 평가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중국어 교육 현장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이어야 할 언어교육, 중국어 교육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섯째,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교수 대상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 체계가 필요.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한국이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영어 혹은 교수 대상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한국어 교육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특히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일지라도 한국어에 대한 일정 이상의 언어지식체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한국인 학생이 중국어를 배움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인 중국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대조언어학과 같은 인접 학문영역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융합과 통섭이 시대의 흐름이고 학제 간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V. 나가는 말

나날이 높아지는 중국에 대한 관심은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 유럽연합, 미주 등 지역에서는 중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다. 미국은 대학과목 선이수제인 AP(Advanced Placement)와 고등학생 교과학력 평가인 SAT II (Subject Test II)에 중국어 시험을 도입하면서, 중국어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언어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추진하는 일련의 중국어 국제화 정책은 이러한 분위기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어의 소프트 파워를 실감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중국어 교육 종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위에서 새로운 중국어 평가방식의 도입에 따른 교육 방식과 내

용의 변화라는 인식의 바탕에서, 미흡하지만 중국어 고급 구술평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뿐 만 아니라, 학제 간의 연구로 시야를 넓혀 이와 관련된 토론과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바란다. 또한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실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됨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국어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 參考文獻 >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大綱SHSK一級》, 商務印書館, 2009.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大綱SHSK二級》, 商務印書館, 2009.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大綱SHSK三級》, 商務印書館, 2009.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大綱HSK五級》, 商務印書館, 2010.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大綱HSK六級》, 商務印書館, 2010.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真題集HSK五級》, 商務印書館, 2010.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真題集HSK六級》, 商務印書館, 2011.
- 國家漢辦/孔子學院總部, 《新漢語水平考試真題集:HSK口試(2012)》, 商務印書館, 2012.
-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國際漢語能力標準》,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10.
- 심소희, <한국인의 중국어 문장 끊어 읽기에 대한 고찰>, 《中國言語研究》, 8, 1999.
- 심소희, <中國語 리듬(Rhythm)單位와 語法構造>, 《中國語文學誌》, 5, 1998.
- 樸敬瑞, <漢語語義表達與重音>, 《中國語文學論集》, 18, 2005.

- 김미순, <중국어 의사소통능력 평가 및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신HSK3과 SATⅡ의 문항 분석을 기반으로>, 《중국언어연구》 32, 2011.5.
- 김미순, <초·중급 중국어능력평가 양상에 따른 중국어교육에 대한 소고 -SATⅡ와 AP 및 신HSK 3급과 5급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8, 2011.6.
- 김선아, <新HSK와 출력(output) 위주 중국어 지도방안 고찰 -新HSK6급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23, 2011.
- 문미진, <新舊 HSK 비교 연구 -시험내용과 문제유형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47, 2011.
- 박찬욱, <중국어 말하기 교육을 위한 몇 가지 화용론적 제언-교재 속 지시화행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7, 2012.6.
- 박찬욱, <중국어 회화교재의 대화문 작성을 위한 제언 -전화대화문을 중심으로>, 《中國語教育和 研究》 12, 2010.11.
- 성윤숙, <새로운 중국어능력평가방식 新HSK 분석연구- 新HSK 5급과 舊HSK 초·중급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4, 2010.9.
- 안영희, <중국어 리듬(節奏)의 특징>, 《中國文學》 31, 1999.5.
- 오수경, <수행인문학과 중국어교육>, 《인문학보》 33, 2008.
- 오수경, <연극적 수행을 통한 중국어 학습 방법론 연구>, 《中國語文學誌》 33, 2010.
- 이지은, 《한국 대학생의 영어 작문 과정에서 사고 구술의 한국어 사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윤철, <중국의 중국어 국제화 전략 추진과정과 의미에 관하여>, 《중국연구》, 47권, 2009.11.
- 최정순·안미란,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 공통 기본 지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등급기술 시안(1)>,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6, 2005.
- 鮑冬嬌, <語法聽寫與外語習得相關性實證研究>, 《外國語言文學》 1, 2007.
- 崔達送, <漢語口語的教學方法>, 《漢語學習》 6, 1994.

- 崔言, <新漢語水平考試的課件創新實踐>, 《考試研究》 54, 2011.
- 董愛國, <淺論提高口語教學效果>, 《中國語文學誌》 11, 2001.
- 高旭峰, <HSK(六級)考試信度和效度的評析>, 《湖北經濟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 9:1, 2012.
- 梁紅梅, <整體聽寫活動初探>, 《湛江師範學院學報》 4, 2004.
- 劉一杉, <韓國留學生漢語三字組部分韻律特征的表達狀況研究>, 《語言教學與研究》 4, 2012.
- 劉瑜, <複述寫作中文際策略使用的實驗研究>, 《雲南師範大學學報》 1, 2008.
- 裘廣宇·邱立中, <外語教學“聽記法”的理論探索>, 《宇波職業技術學院學報》 6, 2005.
- 樸贊旭, <대화분석과 중국어 교재분석 -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中國文學研究》 41, 2010.
- 石欣莉, <論複述在新視野大學英語教學中的應用>, 《學理論》 4, 2009.
- 謝小慶, <爲什麼要開發新HSK考試?>, 《中國考試》 3, 2011.
- 徐子亮, <漢語作爲外語的口語教學新議>, 《世界漢語教學》 4, 2002.
- 宇仁浩, <經濟, 禮貌原則與漢語會話教學>, 《中國語文論叢》 22, 2002.
- 宇仁浩, <淺談修辭在漢語口語教學中的運用-以課文的改、編爲例>, 《중국어학연구》 54, 2010.12.
- 張紅霞, <語法聽寫>, 《課程·教材·教法》 9, 2004.
- 張晶·王堯美, <來華預科留學生閱讀策略調查研究>, 《語言教學與研究》 2, 2012.
- 鄭秀戀, <Dictogloss在綜合英語課堂教學中的作用>, 《寧波大學學報》 5, 2009.
- 劉珣, 《對外漢語教學概論》,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 王建勤, 《漢語作爲第二語言的習得研究》,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 楊潘·潘虎, 《新漢語水平考試口試(高級)全攻略》, 世界圖書出版公司, 2011.
- 張宇志·陳鬱·李明 / 백형술·우치갑·오금순, 《신HSK 회화 초급 공략 실전 모의고사+해설서》, 송산출판사, 2010.

- 張宇志·陳鬱·李明 / 백형술·우치갑·오금순, 《신HSK회화 중급 공략 실전 모의고사+해설서》, 송산출판사, 2010.
- 張宇志·陳鬱·李明 / 백형술·우치갑·오금순, 《신HSK회화 고급 공략 실전 모의고사+해설서》, 송산출판사, 2010.
- 趙金銘, 《新視角漢語語法研究》,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 趙金銘, 《對外漢語教學概論》, 商務印書館, 2004.
- 中央廣播電視大學對外漢語教學中心, 《跨越新HSK(五級)模擬試題集》,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1.
- Lenvinson, Stephen C.,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이익환·권경원 공역, 《화용론》, 한신문화사, 2003.

<中文提要>

该论文主要围绕着语法、语用探讨“新HSK”高级口试的课堂教学方法。

我们首先简单地了解“新HSK”研制的理论背景, 以及高级口试的构成体制和考试内容。

其次, 具体联系“新HSK”高级口试的三项考题, 来进行讨论现代汉语语法在高级口试中的应用情况, 并提出一些比较有效、可行的教学方式和学习方法。接着, 我们采用“复述、经济原则和礼貌原则、Speech act”等概念, 来讨论“新HSK”高级口试的语用教学。

再次, 在此基础上推断今后高级口语教学所变化的趋向、所教学的内容。我们认为今后高级口语教学最突出、最引人注目的变化就是以语用为中心进行口语教学这一点。这样能有效地提高学生们的汉语口头表达能力、描写能力以及论证能力。

最后, 根据上面的讨论来提出7点关于对外汉语高级口语教学的尝试性的意见, 希望这对对外汉语高级口语教学的发展有所帮助, 有所作用。

总之,“新HSK”高级口试的实行,可能给我们带来现代汉语口语教学领域的变化,就是说,可能需要改变口语教学的内容,改变口语教学的方式等。

주제어 : 新HSK, 高级, 口试, 语法, 语用, 口语教学

